

'95年 새해를 맞이하여 ...



柳 纘 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乙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국군장병과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본 會에서 발행하는 국방전문지 <國防과 技術>이 創刊 16돌을 맞이한 것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 所任을 다해 온 편집 관계자와 그동안 聲援과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지난 4반세기동안 국민적 성원과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내 기본병기의 완전 국산화는 물론 고도 첨단병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산업계는 조달물량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 전용시설의 유희화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편승하여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北韓의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권변화와 핵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에서 보듯이 북한외 폐쇄성과 호전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주변강국의 군비확충이 더한층 강화되고 있는 불확실한 안보환경하에서 21세기의 국가안보를 공고히하고 국력을 바탕으로 한 대외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확고한 安保態勢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제2의 創軍이라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우리 軍이 완벽한 자주국방의 기틀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수 있도록 군전력증강의 근간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방위산업계도 방위산업의 발전이 장차의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술의 선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本 會에서도 새해를 “방위산업 기반강화 提高의 해”로 설정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月刊 <國防과 技術>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원해 주신 관계당국 및 방산업체와 국군장병,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
제2의 創軍이라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우리 軍이
완벽한 자주국방의 기틀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수 있도록 군전력
증강의 근간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
”